

唐代批評으로 본 「안민가」

양희철*

1. 서론

이 글은 당대비평의 측면에서 「안민가」를 해석·평가하여, 「안민가」를 唐詩의 반열에 놓았을 때의 그 위상과, 「안민가」 창작에 唐代批評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살피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찬기파랑가」의 평가어인 ‘其意甚高’는 배경설화의 문맥상 「안민가」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지를 보인다. “내가 듣건대 대사가 기파랑을 찬양한 시늬가 그 意格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이것이 정말인가”라는 경덕왕의 질문에, 충담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덕왕은 “그렇다면 곧 짐을 위하여 「이안민가」를 지으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의 조건인 “그렇다면”은 “짐을 위하여 「이안민가」를 지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갖추어야 할 것이 '기의심고'임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이안민가」를 짓되, 「이안민가」 역시 '기의심고'하게 지으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의심고'에 대한 선행의 해독과 해석은 거의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高'를 '깊고 높다'로 본 해석은 '高'의 의미를 벗어나고, '意高'를 '뜻이 높다'로 본 해독과 해석은, '뜻이 깊다'라는 말을 주로 쓰고 '뜻(=내용)이 높다(=어렵다)'에 한정해 쓰는 문제를 보인다. 단지 '그 뜻(=내용)이 매우 고상하다'만이 문맥이 통하지만, 그 의미의 막연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意'를 당대비평의 '意格'으로 보면, '其意甚高'는 '그 의격이 매우 높다'가 되면서, 그 문맥이 잘 통한다. 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민가」를 당대비평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다른 기반들과 연결된다.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能感動天地鬼神'은 당대의 비평용어이며, '其意甚高'도 당대비평에서 보이는 '此意甚高'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意高' 곧 '格高'임을 설명한 王昌齡(698~756)의 得趣와, 皎然(720?~793?)의 創意가, 모두 「찬기과랑가」에서 확인된다.¹⁾ 또한 「安民歌」의 '歌'는 「詩文之可歌者 卽以歌爲名」이고, 배경 설화인 "奉勅歌呈之"의 '歌'는 '노래를 지어'가 아니라 '作詩(作詩亦曰歌)'의 의미라는 점에서, 「安民歌」는 詩이다.²⁾ 이런 점에서 詩인 「안민가」(경덕왕 24년: 765)의 해석과 평가를, 왕창령과 교연의 비평을 포함한 唐代批評, 그 중에서도 詩批評을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2. 得趣

이 장에서는 왕창령이 '의격'에서 上格으로 치는 '得趣'('理得其趣 詠物如合砌)의 측면에서 「안민가」를 해석하고 평가하려 한다.

1) 양희철, 「唐代批評으로 본 '其意甚高'와 <찬기과랑가>」, 『韓國詩歌研究』 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43~76면

2) 양희철, 「'其意甚高' 연구의 문제와 전망」, 『인문과학논집』 30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 19~35면

1) 事理

왕창령은 得趣, 得理, 得勢 등의 격을 들고, 그 중에서 ‘득취’를 상격으로 보았다. 이 득취는 “理가 그 趣(意味情態)를 얻어(理得其趣), 사물을 노래함이 여럿이 모여 조화를 이룬 섬들과 같음(詠物如合砌)”을 말한다.³⁾ 이 경우의 理(道理, 事理)는 中格의 得理에서 얻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理得其趣의 검토에 앞서, 「안민가」에서 발견되는 理인 事理를 먼저 보자.

제1~4행에는 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을 정리하면, 경덕왕께서 “임금은 아버지여! 신하는 어머니여!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군신민의 관계를 부모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씀하시면(조건), 백성이 군신의 사랑을 안다(결과)는 것이다. 이 조건은 가정·혈연적인 정에 기초한 것으로, 백성이 군신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단락은 백성이 군신의 사랑을 알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치를 얻는다.

다음으로 제5~8행에도 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을 정리하면, “백성들이 ‘주린 배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물건을 이를 (백성이) 먹어 (군신이 백성을) 다스리도다![(백성이) 다스려지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져!’라고 한다면, 나라가 지켜짐을 알고다!”이다. 이는 백성들의 입에서 식생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거나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감탄하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조건), 나라가 지켜짐을 알겠다(결과)는 것이다. 이 조건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말하는 나라가 지켜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라가 지켜짐을 알 수 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단락도 나라가 지켜지는 핵심적인 이치를 얻는다.

3) 詩有三格 一曰得趣 謂理得其趣 詠物如合砌 爲之上 詩曰 五里徘徊鶴三聲 斷續猿如何俱失 路相對泣離尊 是也… 二曰得理 謂詩首末確語 不失其理 此爲之中也 … 三曰得勢 … (王昌齡, 「詩中密旨」, 顧龍振 編輯, 『詩學指南』, 廣文書局, 中華民國 59, 93면)

다음으로 제9, 10행도 중의를 포함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만을 정리하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조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결과)”⁴⁾이다. 앞의 조건은 도리이면서 동시에,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단락도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치를 얻는다.

이렇게 「안민가」는 각 단락에서 확연하고 핵심적인 이치를 얻어, “首末 確語 不失其理”를 확보하면서, ‘得理’의 中格을 일단 확보한다.

2) 理得其趣

이제부터는 得趣의 ‘理得其趣’를 먼저 보고, 이어서 ‘습礪’를 보려 한다. ‘趣’는 흔히 興趣(즐겁고(흐뭇하고 기쁘고) 좋아서 일어나는 정서)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意味의 情態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행에 나타난 의미의 정태는 내용과 표현에서 파악되는데, 먼저 그 내용의 것을 보자. 이 네 행은 “군신민이 부모아라고 말씀하시면(조건) 백성이 사랑을 안다(결과)”는 내용이다. 이 결과는 희망에 찬 미래의 꿈이고, 이 조건은 그 꿈을 위한 실천 사항이다. 이 꿈과 이 실천 사항은 군신민을 즐겁고 좋게 만드는 정감적 정서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희망에 찬 미래의 꿈은 그 향유자들로 하여금 꿈에 부풀게 하고, 어떤 어려운 난관도 즐겁고 좋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감적인 정서의 힘이기 때문이다.

4) 제10행의 향찰인 ‘爲內尸等焉’과 ‘太平恨音叱如’에 대한 해독은 해독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爲內尸等焉’은 ‘히멜 드언’(해낼 것이면)으로 해독하면서, ‘-르 드언’을 중세어에서 ‘-르 지면’(~르 것이면)의 의미를 가진 ‘-르 던’이나 ‘-르 든’으로 본 것이다(양희철, 「이두와 향찰의 ‘內’ 연구」, 『語文研究』 35, 어문연구학회, 2001, 117면). 그리고 ‘太平恨音叱如’는 ‘태평흔입짜’(태평한 것입니다!)로 해독하면서, ‘-恨(흔)’의 ‘-ㄴ-’은 동명사형어미로, ‘-音(입)-’의 ‘-ㅁ-’은 주체존대법 ‘-오-’의 선행형으로 본 것이다(양희철, 「구결/향찰 ‘ㅅ/音’의 해독 연구」, 『韓國言語文學』 49, 한국언어문화회, 2002, 617면).

이 부분 꿈에 의해 발생한 정감적 정서 내지 의미의 정태는 즐겁고 좋은 정서로, 곧 흥취를 말한다. 이 흥취는 표현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된다.

제1~4행에서 제1행 끝의 ‘아버여!’, 제2행 끝의 ‘어미여!’, 제3행 끝의 ‘아히고!’, 제4행 끝의 ‘알고다!’ 등은 모두가 회구의 감탄형 종결어미이고, 제4행 앞의 ‘흐실디’는 회구된 내용을 유도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이 어휘들이 속한 문장들은 모두가 직접화법이다. 이 정리에서, 왜 제1~4행의 종결어미들을 모두 회구의 감탄과 회구된 내용을 유도하는 의문으로 썼는가 하는 질문과, 왜 모두 직접화법으로 썼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구의 감탄과 회구된 내용을 유도하는 의문의 종결어미들은, 그 표현의 기능상, 모두가 시적 자아와 시적 청자로 하여금 회구하거나 회구된 내용으로 유도하는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제1~4행의 감탄형이나 의문형을 평서형으로 바꾼 것(임금은 이르고, 신하는 사랑할 어미며,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시면)과 대조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가직접화법과 자유직접화법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a-1.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사랑할 어미!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

a-2. 라고 말씀하실지?”

b-1.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알고다!”

(b-2. 라고 백성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a는 a-1(지시: 필수구절)과 a-2(부가: 선택구절)가 합친 부가직접화법이다. 이에 비해 b는 b-2(부가: 선택구절)로 상정할 수 있는 ‘-라고 백성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가 생략된 자유 직접화법이다. 만약 b가 부가직접화법으로 표현되었다면, b 전체의 인식주체는 백성으로, 시제는 미래로 된다. 그러나 작품에서와 같이 b-2가 생략되면서, 인식주체는 백성, 시적자아,

군신으로 확대되고, 시제는 현재로 된다. 이 차이에서 전자는 군신민의 공감적 정서를 통하여 정감적 정서를 강화하고, 후자는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를 통하여 정감적 정서를 강화한다. 그것도 희망에 찬 미래의 꿈(vision)을 실현된 현재의 감탄으로 표현하여, 부푼 꿈의 흥취를 보여주게 된다. 게다가 제1~3행은 군신민을 부모아에 각각 은유한 유유이다. 이 표현은 가정적이고 혈연적인 정감적 정서로 군신민을 본다는 점에서 정감적 정서에 호소하는 측면을 강화하면서, 그 정태를 매우 높게 한다.

이런 점들로 보아, 제1~4행은 종결어미를 통한 회구와 그 유도,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인식주체의 확대와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 등을 통하여, 부푼 꿈에 의해 발생한 흥취(즐겁고 좋은 정서) 내지 그 의미의 정태를 얻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것도 가정적이고 혈연적인 것에 기초한 정감적 정서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5~8행의 의미의 정태도 내용과 표현에서 파악되는데, 먼저 내용의 것을 보자. 제5~8행에는 중의가 있는데, '다술아라'의 중의만을 계산하면, "주린 배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물건을 이를 (백성이) 먹어 (군신이 백성을) 다스리도다!/(백성이) 다스려지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저! 할지? 나라가 다니기 알고다!"이다. 이는 식생활이 해결되게 다스리니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조건), 나라가 지켜짐을 안다(결과)로 축약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도 결과는 희망에 찬 미래의 꿈이고, 조건은 그 꿈을 위한 실천 사항이다. 이 꿈과 이 실천 사항 역시 제1~4행에서와 같은 논리에서, 흥취를 가지며, 이 흥취는 표현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된다.

제6행 끝의 '다술아라!', 제7행 끝의 '가저!', 제8행 끝의 '알고다!'는 모두가 회구의 감탄형 종결어미이고, 제8행 앞의 '할지?'는 회구된 내용의 유도를 위한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포함된 문장들 역시 직접화법들이다. 이 중에서 회구의 감탄형과 회구된 내용의 유도를 위한 의문형은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구의 감탄

과 회구된 내용을 유도하는 의문의 종결어미들은, 그 표현의 기능상, 모두가 시적 자아와 시적 청자로 하여금 회구하거나 회구된 내용으로 유도하는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제5~8행의 감탄형이나 의문형을 평서형으로 바꾼 것(백성이 다스려지고,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과 대조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화법 역시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c-1. “... 다스려지도다/다스리도다! ... 어디로 가제!

c-2. 라고 말할지?”

d-1. (그렇게 말을 하면) “나라가 지켜짐을 알고다!

(d-2. 라고 군신이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c는 c-1과 c-2가 합친 부가직접화법이다. 이에 비해 d는 d-2로 상정할 수 있는 ‘-라고 군신이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가 생략된 자유직접화법이다. 만약 d가 부가직접화법으로 표현되었다면, d 전체의 인식주체는 군신으로, 시제는 미래로 된다. 그러나 작품에서와 같이 d-2가 생략되면서, 인식주체는 군신, 시적자아, 백성으로 확대되고, 시제는 현재로 된다. 이 차이에서 전자는 군신민의 공감적 정서를 통하여 정감적 정서를 강화하고, 후자는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를 통하여 정감적 정서를 강화한다. 그것도 희망에 찬 미래의 꿈을 실현된 현재의 감탄으로 표현하여, 부푼 꿈의 흥취를 보여주게 된다. 게다가 제5~7행은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는 백성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제5~8행 역시 종결어미의 회구와 그 유도, 자유직접화법의 인식주체의 확대와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 등을 통하여, 부푼 꿈에 의해 발생한 흥취 내지 그 의미의 정태를 얻는다.

제9, 10행에서도 의미의 정태는 내용과 표현에서 파악되는데, 먼저 내용의 것을 보자. 제9, 10행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조

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결과)”이다. 이 내용에서도 희망에 찬 미래의 꿈인 결과와, 그 꿈을 위한 실천 사항인 조건은, 제1~4행에서와 같은 논리에서, 흥취를 가지며, 이 흥취는 표현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된다.

제10행 앞의 ‘희넬 드언’은 제10행에서 회구된 내용을 유도하는 의문형 종결어미이고, 제10행 끝은 회구의 감탄형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속한 문장들 역시 직접화법들이다. 이 중에서 회구의 감탄형과 회구된 내용의 유도를 위한 의문형은, 평서형으로 바꾼 것(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합니다)과 대조하면,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화법도 정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e.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

f.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

이 제9, 10행은 군신민 중의 어느 하나가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로 상정할 수 있는 부가(선택구절)가 생략된 자유직접화법이다. 만약 부가직접화법으로 표현되었다면, 이 제9, 10행의 인식주체는 군신민 중의 어느 하나로, 시제는 미래로 된다. 그러나 작품에서와 같이 선택구절이 생략되면서, 인식주체는 군신민과 시적자이로 확대되고, 시제는 현재로 된다. 이로 인해 제9, 10행 역시 군신민의 공감적 정서와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를 통하여, 부푼 꿈의 흥취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점들로 보아, 제9, 10행 역시 앞의 제1~4행 내지 제5~8행과 같이 부푼 꿈에 의해 발생한 흥취 내지 그 의미의 정태를 얻는다.

이렇게 각 단락들은, 종결어미를 통한 회구와 그 유도,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인식주체의 확대와 미래시제의 현재시제화 등을 통하여, 부푼 꿈에 의해 발생한 흥취 내지 그 의미의 정태를 얻는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得趣인 ‘理得其趣’를 매우 높게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合砌

왕창령은 得趣를 ‘理得其趣’로 설명하고, ‘詠物如合砌’로 비유하였다. 이는 事理나 道理가 가지는 條理의 體系와, (興)趣를 형성하는 情感, 그 중에서도 力動的인 情感의 결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리의 체계와 역동적인 정감이 작품에 표현될 때에, 多端, 回旋起伏, 別意, 漸高 등이 관여한다. 그런데 「안민가」는 텍스트 차원에서 표면적 텍스트가 이면적 텍스트를 함축한다. 合砌 역시 이 두 텍스트를 따라 높아지므로, 두 텍스트를 나누어 차례로 설명하려 한다.

(1) 표면적 텍스트

표면적 텍스트는 제4행 앞의 ‘흐실디’, 제8행 앞의 ‘홀디’, 제10행 앞의 ‘히넬 드언’ 등이 의미상 바로 앞의 행들에 붙은 것으로 볼 때에 발생한다. 이 텍스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보자.

제1단락에서는 임금이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권고를 보인다. 이 제1단락의 언어들은 5단의 조화된 섬돌을 보여준다.

제1~4행에서 먼저 섬돌을 이루는 것은 제1~3행의 각 행들이다. 이 세 행들은 각각 주부와 술부가 연결된 類喩의 감탄문이다. 유유 자체가 섬돌과 같다. 예로 “天子如堂 群臣如階 衆庶如地”의 유유를 들 수 있다. 이런 3단의 섬돌은 감탄 문장의 반복으로 점층이다. 그 다음에 ‘흐실디?’를 읽고 나면, 제1~3행은 시적 자아의 말이 아니라 시적 청자가 할 말로 바뀌면서 別意를 얻어, 회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흐실디?’를 읽고 나면, 이 ‘흐실디?’가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점에서, 제1단락이 이 곳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는 ‘흐실디’와 의미의 층위에서 수평적인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상관이 없습니다)” 정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흐실디?’ 뒤에는 ‘흐실디’보다 의미의 층위가 높은 “일건이 뜻을 알고다”가 붙으면서, 기복의 섬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제1~4행에는 점층의 3단과 회선과 별의의 1단과 기복의 1단이 합친 5단의 섬돌이 모이고, 이 중에서 제1~3행의 3단은 각각 이중적인 기능(시적 자아의 말과, 임금의 말)을 보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합체로 정리할 수 있다.

제2단락은 제5~8행이다. 제5~6행의 의미는 중의들을 가지고 있다. 이 텍스트에 소용되는 중의는 ‘자-니’의 생략된 주어, ‘다술아라’의 중의(다스리도다, 다스려지도다)와 이에 생략된 주어 또는 목적어에 의한 2중의⁵⁾이다. 이 중의들을 계산할 때에, 제5~8행은 선정을 하여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좋은 말을 백성들이 하게 선정을 베푸라는 권고이다. 이 제5~8행에서는 4회의 회선기복을 보인다.

제1단락인 제1~4행이 이 제2단락으로 넘어오면서 회선기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이는 소재와 형식 단락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제1단락의 당신은 ‘임금=아버 신하=어미 백성=아이’라고 가정·혈연적인 입장에서 군신민의 관계를 말씀하시라는 권고에 점층된 권고이다. 다음으로 제5~6행은 “... 이홀 자-니 다술아라”이고, 제7행은 “이 다홀 브리곡 어들이 니거-더”이다. 이 제5~6행과 제7행은 그 소재가 각각 다른 별개의 문장들이며, 그 의미의 층위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높다. 이로 인해 기복의 섬돌이 형성된다. ‘홀디?’를 읽고 나면, 제5~7행은 시적 자아

5) 이 텍스트에 소용되는 2중의는 다음과 같다.

- (1)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왕과 신하가 백성을) 다스리도다!
- (2)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백성이) 다스려지도다!

가 하는 말에서 백성들이 할 말의 別意를 보이면서 회선을 보이고, 이로 인해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는 ‘홀디’와 의미의 층위에서 수평적인 “(아니)해도 좋다/상관 없다” 정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홀디?’ 뒤에는 ‘홀디’보다 의미의 층위가 높은 “나라-기 디니이기 알고 다”가 오면서 기복을 일으킨다. 이 기복 역시 하나의 섬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제2단락에서는 4단(단락의 변화에 따른 회선기복, 6행과 7행 사이의 기복, 제8행 앞의 ‘홀디’에 의한 별의와 회선, ‘홀디’와 그 다음 사이의 기복)의 섬돌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5~7행은 이중의 기능(시적 자아의 말과 백성의 말)이 조화를 이루면서, 제5~8행은 점층의 점고를 보인다.

제2단락에서 제3단락으로 바뀌면서, 문장과 소재도 바뀌어 회선기복이 발생하고,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제3단락의 의미는 제2단락에 점층되고, 이 제9, 10행에서도 1회의 기복이 발생한다. 제9~10행의 의미는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이다. 이는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임금 신하 백성 각자가 각자다워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 것이며, 제2단락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좋은 말을 백성들이 하게 선정을 베풀라는 권고에 점층된 것이다. 그리고 제9행과 제10행의 ‘희넬 ㄷ언’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미의 층위가 같은 ‘군신민이 각각 소임을 잘하는 것이다’ 정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10행의 ‘희넬 ㄷ언’ 다음에는 ‘희넬 ㄷ언’보다 의미의 층위가 높은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가 붙어, 기복의 섬돌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 표면적 텍스트는, 제1단락(제1~4행)에서 5단의 섬돌이, 제2단락(제5~8행)에서 4단의 섬돌이, 제3단락(제9~10행)에서 2단의 섬돌이, 각각 모인 것과 같은 回旋起伏의 조화를 이루고, 다시 각 단락은 백성의 사랑 인식, 나라가 지켜짐의 인식, 나라가 태평함 등의 점층적인 점고를 이루는 畧礎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 표면적 텍스트는 畧礎에서 그

정도가 매우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이면적 텍스트

「안민가」의 합체는 표면적 텍스트로 끝나지 않는다. 표면적 텍스트는 제4행의 ‘흐실디’, 제8행의 ‘홀디’, 제10행의 ‘히넬 드언’ 등이 각행의 끝에 오는 構文的 重意에 의해 이면적 텍스트를 함축한다. 이 이면적 텍스트는 다시 한번 많은 합체를 보여준다.

제1~4행에서 ‘흐실디’가 제4행의 끝으로 가면, 나머지 시어들의 의미도 변한다. 우선 “일건이 뜻을 알고다”의 수궁적인 ‘알고다’가 빈정대는 ‘알고다’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알고다’가 ‘하실지?’ 앞에서 수궁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을 허락하며, ‘알고다’의 형태는 수궁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을 모두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4행의 “일건이 뜻을 알고다”는 수궁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을 가지게 된다.

① 백성이 사랑을 알고다!(수궁적인 내용)

② 백성이 사랑을 알고다!(빈정대는 내용)

또한 이 변화는 제1~3행의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에도 영향을 주어, 수궁적인 내용에 빈정대는 내용을 더한다. 이 두 변화는 양가적 중의에 의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③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아이고!’(수궁적인 내용)

④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아이고!’(빈정대는 내용)

이렇게 되면, 제1~4행은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 백성이 사랑을 알고다! 하실지?”로 정리되지만, 그 내용은 둘로 정리된다. 하나는 ③과 ①의 결합에 따른 수궁적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④와 ②의 결합에 따른 빈정대는 내용이다.

이 두 내용은 그 의미에서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인다. 먼저 수궁적인 내용은, “군신민이 부모아이고!” ‘백성이 사랑을 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로,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시라는 권고이다. 반면에 빈정대는 내용은,

“군신민이 부모아인가! ‘백성이 사랑을 아는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로, 責問을 통하여 선정을 勸告하는 責難이다. 이렇게 보면, 제1~4행은 권고와 책난을 함축하는데, 이는 앞의 표면적 텍스트에서 본 권고보다 그 정도가 한층 높은 점고의 형태이다.

이제 제1~4행의 합체를 보자. 제1~4행은 5개의 섬돌을 이루되, 점고와 이중의 조화를 이룬 合砌를 보인다. 제1~3행에서 보이는 3단의 섬돌은 앞의 표면적 텍스트에서와 같다. 다음으로 제1~3행인 감탄 문장의 반복에 그 의미의 층위가 높은 “일건이 뜻을 알고다”가 붙어, 기복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일건이 뜻을 알고다”는 ‘혹실디?’를 읽기 전에는 시적 자아가 말하는 종결의 문장이지만, ‘혹실디?’를 읽고 나면, 이 때까지 한 말이 시적 자아가 한 것이 아니라, 시적 청자가 할 말의 別意가 되어, 이 별의에 의한 회선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섬돌을 보인다. 이 경우에 별의는 중의에 의한 것으로 이중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제1~4행에서는 5개의 섬돌이 조화를 이루고, 이 섬돌은 다시 이중적인 조화를 이루어, 그 정도가 매우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2단락은 제5~8행인데, 제8행의 ‘홀디’가 행의 끝으로 가면, 나머지 시어들의 의미에도 변화가 온다. 우선 바로 앞의 “나라기 디니이기 알고다”가 수긍적인 내용도 보이지만, 동시에 빈정대는 내용도 가지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나라가 지켜짐을 알겠다!(수긍적인 내용)
 - ② 나라가 지켜짐을 알겠다!(빈정대는 내용)
- 이에 따라 제7행도 수긍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을 갖게 된다.
- ③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져!(수긍적인 내용)
 - ④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져!(빈정대는 내용)

또한 이 변화들로 인해 제5, 6행의 내용도 수긍적인 내용 외에도 빈정대는 내용도 가지게 된다. 이는 제5, 6행의 “窟理叱 大盼 生以支 所音 物生 此盼 喚惡支 治良羅”에서, ‘窟理’(구리, 理窟: 道理의 심오처)와 ‘物生’(갓살,

生物) 각각의 중의, ‘숨’ 다음에 생략된 격어미 ‘-의/을’, ‘자-니’의 생략된 주어, ‘다스라라’의 중의(다스리도다, 다스려지도다)와 이에 생략된 주어 또는 목적어 등에 의해 28중의⁶⁾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28중의에서 수궁적인 8중의들과 빈정대는 20중의들은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의 문장으로 압축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둘로 정리할 수 있다.

⑤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수궁적인 내용)

6) 일차적으로 사실 수궁적인 것으로 ‘구리’의 2개와 ‘理窟’의 2개가, 빈정대는 것으로 ‘구리’의 6개와 ‘理窟’의 2개가 각각 나타나, 아래의 12개가 된다. 이차적으로 수궁적인 것의 결합에서 ‘구리’의 2개와 ‘理窟’의 2개가 결합하여 4개의 중의가 더해지고, 빈정대는 것의 결합에서 ‘구리’의 6개와 ‘理窟’의 2개가 결합하여 12개의 중의를 더한다. 결국 총28중의가 나타난다. 지면상 결합된 것은 생략한다.

- (1)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왕과 신하가 백성을) 다스리도다!(수궁적인 내용)
- (2)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백성이) 다스려지도다!(수궁적인 내용)
- (3)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왕과 신하가) 자시어 (백성을) 다스리도다!(빈정대는 내용)
- (4)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왕과 신하가) 자시어 (백성이) 다스려지도다!(빈정대는 내용)
- (5)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왕과 신하가) 자시어 (백성을) 다스리도다!(빈정대는 내용)
- (6)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왕과 신하가) 자시어 (백성이) 다스려지도다!(빈정대는 내용)
- (7)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왕과 신하가 백성을) 다스리도다!(빈정대는 내용)
- (8) 구리(飢腹)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 갓살(물건을)/이를 (백성이) 먹어 (백성이) 다스려지도다!(빈정대는 내용)
- (9) 理窟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을) 生物(이)/이를 먹어(=품어) (生物이) 다스려지도다!(수궁적인 내용)
- (10) 理窟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을) 生物(이)/이를 먹어(=품어) (生物이 生物을) 다스리도다!(수궁적인 내용)
- (11) 理窟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을) 生物(이)/이를 먹어(=품어) (生物이) 다스려지도다!(빈정대는 내용)
- (12) 理窟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을) 生物(이)/이를 먹어(=품어) (生物이 生物을) 다스리도다!(빈정대는 내용)

⑥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빈정대는 내용)

이상의 ①~⑥을 종합하면, 제5~8행은 수궁적인 것과 빈정대는 것의 이중적 내용을 가진다. 이 두 내용은 그 의미에서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인다. 먼저 수궁적인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져! 나라가 지켜짐을 알겠다! 할지?”로, 잘 하시겠지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도록 잘 하시라는 권고이다. 반면에 빈정대는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도 다스린다/다스려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든 가겠다!’ ‘나라가 지켜짐을 잘도 알겠다!’ 할지?”로, 責問을 통하여 선정을 勸告하는 責難이다. 이렇게 제5~8행은 권고와 책난을 함축하는데, 이 함축의는 표면적 텍스트에서 본 권고보다 그 정도가 한층 높은 점고의 형태이다.

이제 제5~8행의 畧圖를 보자. 이 단락으로 제1단락이 넘어오면서 회선 기복에 의해 섬돌 하나가 형성된다. 이는 소재와 형식 단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제2단락은 제1단락의 점층이며, 이 제2단락에서는 3회의 회선기복에 의한 3개의 섬돌이 형성된다. 제5~6행과 제7행에서 발생하는 기복은 표면적 텍스트에서와 같다. 다음으로 제7행인 “이 다흙 버리꼭 어들이 니 거-더”에, 그 의미의 층위가 높은 “나라-기 디니이기 알고다”가 다시 오면서 기복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섬돌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홀디?’까지를 읽고 나면, 지금까지 한 말이 시적 자아가 한 말이 아니라, 백성이 할 말로 바뀌면서 중의에 의한 別意와 회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나의 섬돌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제2단락은 4개의 섬돌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4개의 섬돌은 점고를 이루고, 다시 수궁적인 것과 빈정대는 것이 이중적 조화를 보이며, 그 내부에는 28중의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畧圖는 매우 높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제9, 10행에서 ‘하늘 드인’(해낼 것이면)이 제10행의 끝으로 가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닛다”의 의미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것입닛다’의 ‘-스다’는 현대어에 없지만, ‘太平恨音比如’의 해독 ‘태평흔임자’의 ‘-씨’를 살리기 위

한 것이다. 이는 수궁적인 ‘것입니다!’와 빈정대는 ‘것입니다!’의 두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각자가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낼 것이면”의 내용으로, 이런 내용의 말을 군신민 각자가 하도록 정치를 하시라는 勸告이다. 반면에 후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각자가 ‘나라가 꺾도 태평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낼 것이면”의 내용으로, 이런 빈정대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責問이다. 이는 이런 말을 각자가 하지 않도록 정치를 하시라는 責難이다. 이런 점에서 제9, 10행은 권고와 책난을 함축하는데, 이 함축된 내용은 표면적 텍스트에서 본 권고보다 그 정도가 한층 높은 점고이다.

이제 제9, 10행의 舍砌를 보자. 먼저 제2단락에서 제3단락으로 바뀌면서, 문장과 소재도 바뀌어 회선기복에 의한 섬돌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제9, 10행에는 1회의 기복과 1회의 회선이 있다. 제9행의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를 읽고 나면, 이것들이 부사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는 ‘하면/할 것이면/해낼 것이면’ 등과 같은 용언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의미의 층위가 높은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가 오면서, 기복의 섬돌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히낼 드언’을 읽고 나면, 그 앞까지 한 말이 시적 자아의 말이 아니라, 군신민이 할 말의 別意로 바뀌면서 회선의 섬돌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제3단락은 3개의 섬돌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개의 섬돌은 점고를 이루고, 다시 수궁적인 것과 빈정대는 것이 이중적 조화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舍砌는 매우 높다.

이상을 종합하면, 표면적 텍스트에 함축된 이면적 텍스트에서는, 제1단락(제1~4행)에서 5단의 섬돌이, 제2단락(제5~8행)에서 4단의 섬돌이, 제3단락(제9~10행)에서 3단의 섬돌이, 각각 모여 回旋起伏의 조화를 이루고, 다시 각 단락은 백성이 사랑을 인식함과 인식하지 못함, 나라가 지켜짐의 인식과 인식하지 못함, 나라가 태평한 것과 태평하지 않은 것 등의 중의적 점층의 점고를 이루는 舍砌를 보인다. 이로 보아, 이면적 텍스트의 합체는 그 정도 매우 높으며, 이 이면적 텍스트는 표면적 텍스트에 함축된

것이란 점에서, 「안민가」의 습砌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세 절들로 보아, 「안민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안민가」는 事理를 명확하게 가지며, 이 事理는 그 意味의 情態인 其趣⁷⁾를 얻어 습砌를 매우 높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안민가」는 ‘得趣’라는 의격의 차원에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創意的 極廣(大)

본 장에서는 ‘意格’에서 교연이 上格으로 친 創意⁸⁾와, 이를 高格이게 하는 ‘極廣’⁹⁾이나 ‘廣大’를 「안민가」에서 검토·해석하려 한다.

1) 創意

「안민가」가 보여주는 세 사상인 愛民思想, 民本사상, 正名思想 등과 美刺說에서 창의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1~4행의 애민사상을 보자. 이 행들과 비교된 경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불교의 “王者民之父母 … 王之養民當如赤子”(『大薩遮尼乾子所

7) 책난에서 흥취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깨져도 흥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작품은 책난에도 불구하고 흥취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미래에 대한 꿈이 이 책난의 쓴 말을 미래의 경계라는 차원에서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왕은 충담사를 王師로 봉하려 했던 것이다.

8) 凡詩者, 雖以敵古爲上, 不以寫古爲能. 立意於衆人之先, 放詞於群才之表. 獨創雖取, 使耳目不接, 終患倚傍之手. … 時人賦孤竹則云「冉冉」, 詠楊柳則云「依依」, 此語未有之前, 何人曾道(皎然, 『詩式』, 許清雲 編輯, 『皎然詩式輯校新編』,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73, 15면).

9) 「立言曰意」按: 意體所列詩例, 多如詩式卷五立意總評中, 所標學之詩例同. 是知皎然立言即立意. 其云: 「詩人意立變化, 無有倚傍, 得之者懸解其間」, 立言者非斤斤於華藻麗辭, 而以創意爲上. 蓋造意之妙, 與造物相表裡, 中藏乾坤 尺幅千里, 以展呈心靈之深遠內涵. 是以意在筆先, 乃成千古佳論(黃美鈴, 『唐代詩評中風格論之研究』,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71, 71~72면).

說』王論品 第五之一)와 유교의 “樂只君子 民之父母”(『대학』)가 김승찬(1985; 1999: 252~254)에 의해 제시되었고, 전자의 불교적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이 이도흙(1993: 212)에 의해 『勝軍王所聞經』에서 보충되기도 했다.

이것들과 작품의 것을 비교하면,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는 아이(兒)의 개념이다. 불경의 아이는 갓난아이의 赤子이고, 유경의 아이는 일반 칭의 아이이다. 이에 비해 작품의 아이는 ‘얼흔 아희(狂尸恨 阿孩)’에서 알 수 있듯이 ‘경망스런(狂=疎狂) 아이’이다. 이는 아이는 같으나, 그 기준점에서 ‘갓낳음’과 ‘경망성’의 차이를 보인다. 둘째는 임금의 기능에서 나타난 차이이다. 불경과 유경에서는 임금을 백성의 부모라 하는 데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임금을 아버지로 한정한다. 이는 불경과 유경에서 임금이 가지고 있던 부모의 기능 중에서 어머니의 기능을 제외시킨 것이다. 셋째는 신하와 이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새로 넣은 것이다. 이는 “臣下를 母라고 한 것은 忠談師의 독특한 발상”(이연숙 1991: 17)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게다가 군=부, 신=모, 민=아 등의 類喩는 가정적이고 혈연적인 것이다. 이런 차이는 한 마디로 불경과 유경의 이원론적 애민사상을, 삼원론적이고 가정·혈연적인 애민사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고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보인 創意로 정리된다.

이번에는 제5~8행의 민본사상을 보자. 이와 관련된 것으로 유교의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관자』)이 김선기(1967: 281)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인용과 작품의 내용에 근거해 김선기와 박노준(1982: 241)은 민본사상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窟理’를 ‘주린 배’로 보는 한에서 일차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窟理’를 ‘理窟’로 보면, 정신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窟理’를 ‘구리’와 ‘理窟’로 동시에 보면,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모두 부상한다. 이런 점에서 이 행들 역시 유교적인 민본사상을 ‘倚傍’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창의가 된다.

제9~10행의 정명사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논어』「顔淵

편의 “君君臣臣父父子子”를 양주동(1966: 393~394)이 제시한 이래, 후대의 연구들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구절은 문장상 두 단위로 나뉜다. 하나는 조정에서의 군신 관계를 언급한 ‘군군신신’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의 부자 관계를 언급한 ‘부부자자’이다. 이 글은 정명사상을 보여주지만, 그 내용은 군신 관계와 부자 관계에서의 정명사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안민가」에서와 같이 군신민 삼자 관계에서의 정명사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정명사상에서 ‘백성답게’는 「안민가」에서만 보이는 특징이고, ‘임금답게’와 ‘신하답게’도 양자에서 글자는 같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르다. 즉 「안연」편의 군신은 상하 관계에서의 ‘임금답게’와 ‘신하답게’이다. 이에 비해 「안민가」의 군신은 상하 관계에서의 ‘임금답게’와 ‘신하답게’뿐만 아니라, 군신민 삼자 관계에서의 피치자인 백성에 대한 ‘임금답게’와 ‘신하답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행의 정명사상은 설령 「안연」편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방’한 것이 아니라, 창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美刺說에서의 창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으로 돌리고, 그 결론만 보면, 『毛詩序』의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에, 일차로 下以風化上과 上以風刺下를 더하고, 다시 이에 정명사상에 입각한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上以風刺上, 中以風刺中, 下以風刺下 등을 더한 창의이다.

이렇게 본다면, 「안민가」는 지금까지 살핀 창의에 의해, 입언에서 상격을 확보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極廣(大)

앞에서 살폈듯이, 제1~3행의 창의는 類喩에 의해 군신민의 정치적인 관계를 부모아의 가정·혈연적인 관계로 바꾼 것이다. 이 유유의 창의는 군신의 백성 사랑을 넓고 깊고 높게 만든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신의 백성 사랑은 상당히 이혜타산적이어서, 넓고 깊고 높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가정적이고 혈연적이어서, 넓고 깊고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넓고 깊고 높음은 넓고 크다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넓고 큼은 더 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넓고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6행도 그 의미가 대단히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함축의에서 살폈듯이, 28중의에 의해, 치자가 피치자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치의 양상을 거의 모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제9, 10행의 기본 의미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이다. 이는 정치적인 인간 세계에서, 치자와 피치자 모두가 각각 그들답게 그들의 소임을 모두 해낼 것이면, 나라가 태평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과거 왕권시대의 정치적 인간 세계에는 군신민만이 존재하고, 군신민 각자가 각자답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사람이 각자답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넓고 큼을 포함한다. 게다가 이 정명사상은 온 천하의 치자와 피치자가 각각 그들다울 때에 천하가 태평하다는 것으로까지 확대하여도 의미가 통한다는 점에서, 그 창의된 내용이 매우 넓고 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10행의 ‘히널 드언’이 의미상 그 앞의 시행에 붙은 표면적 텍스트에서 보이는 매우 넓고 큼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10행의 ‘히널 드언’이 의미상 행의 끝에 붙는 이면적 텍스트의 의미까지 가세할 때에, 이 제9, 10행의 매우 넓고 큰 의미는 좀더 확대되면서, 제9, 10행의 입언이 매우 넓고 큰 것임을 말해준다.

美刺說에서의 창의는 『毛詩序』의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에, 일차로 ‘下以風化上’과 ‘上以風刺下’를 더하고, 다시 이에 정명사상에 입각한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上以風刺上, 中以風刺中, 下以風刺下 등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논리의 조합상 모든 것을 말한 것이 되어, 그 크기가 매우 넓고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제1~3행, 제5~6행, 제9, 10행 등의 의미가 매우 넓고

큼과, 미자설이 매우 넓고 큼은, 앞에서 살핀 ‘의격’의 상격인 창의들에 더해져, 「안민가」는 그 의격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美刺說과 含蓄과 自然

이 장에서는 美刺說과 含蓄, 그리고 自然의 측면에서, 「안민가」를 해석·평가하고자 한다.

1) 美刺說과 含蓄

이 절에서는 美刺說과 含蓄(餘意와 餘味)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美刺說

앞에서 살폈듯이, 「안민가」는 표면적 텍스트와 이면적 텍스트를 가진다. 미자설도 이 두 텍스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만약 이 두 텍스트를 미자설에 맞춘다면, 전자는 ‘美’¹⁰⁾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로, 후자는 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로 부를 수 있다.

① 표면적 텍스트: ‘美’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

제1단락은 임금이 ‘임금은 아버지여! 신하는 어머니여! 백성은 어린 아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권고이다. 이는 『毛詩序』의 “윗사람은 시가로 아랫사람을 교화하고(上以風化下)”의 ‘化’(미자설에서 ‘化’를 ‘美’로 쓴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化’를 ‘美’로 쓴다)를 통한 선정의 권고이다.

10) 유교적인 시의 기능인 ‘興觀群怨’의 ‘觀怨’에 기반을 둔 漢代와 唐代의 美刺說에 포함된 ‘美’(통치 계급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

제2단락은 선정을 하여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좋은 말을 백성들이 하게 선정을 베푸라는 권고이다. 이는 『毛詩序』의 “아랫사람은 시가로 윗사람을 풍자한다(下以風刺上)”를 “아랫사람은 시가로 윗사람을 교화한다(下以風化上)”로 바꾼 것으로,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이다.

제3단락은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이다. 이는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임금 신하 백성 각자가 각자다워야 한다는 권고이다. 그런데 이 권고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군신민을 상중하로 보면,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등의 美를 통해 군신민 각자에게 自省하라는 권고이다. 다른 하나는 군신민이 군신민답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라는 의미가 되어,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가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락(제1~4행): 上以風化下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

제2단락(제5~8행):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

제3단락(제1~4행):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와,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등의 ‘美’를 통한 군신민의 자성 권고.

이 종합에서, 제1단락은 『毛詩序』의 ‘上以風化下’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2, 3단락의 ‘下以風化上’은, 이미 『毛詩序』의 ‘下以風刺上’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제3단락의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등은 君臣民三者의 正名思想에 입각한 미자설의 새로운 해석으로, 중국의 미자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② 이면적 텍스트: ‘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

앞의 이면적 텍스트에서 살폈듯이, 제1~4행은 수긍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을 갖는다. 먼저 수긍적인 내용은, “군신민이 부모이이고! ‘백성이 사랑을 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로,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시라는 권고이다. 이 권고는 ‘上以風化下’의 ‘美’를 통해 선정을 하시라는 권고이다.

반면에 빈정대는 내용은, “군신민이 부모아인가! 백성이 사랑을 아는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로, 責問을 통하여 선정을 勸告하는 責難이다. 이 권고는 ‘上以風刺下’의 ‘刺’를 통해 선정을 하시라는 권고이다. 이렇게 보면, 표면적 텍스트는 이면적 텍스트를 통해, 제1~4행에서 ‘上以風化下’의 ‘美’와 ‘上以風刺下’의 ‘刺’를 통한 권고를 함축한다.

제5~8행도 수궁적인 것과 빈정대는 것의 이중적 내용을 가진다. 먼저 수궁적인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제! 나라가 지켜짐을 알겠대! 할지?”로, 잘 하시겠지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도록 잘 하시라는 권고이다. 이 권고는 중국의 미자설에서 볼 수 없는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해 선정을 하시라는 권고이다. 반면에 빈정대는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선정으로 잘도 다스린다/다스려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든 가겠다!’ ‘나라가 지켜짐을 잘도 알겠대! 할지?’로, 責問을 통하여 선정을 勸告하는 責難이다. 이 권고는 중국의 미자설에서 보이는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해 선정을 하시라는 권고이다. 이렇게 표면적 텍스트는 이면적 텍스트를 통해, 제5~8행에서 ‘下以風化上’의 ‘美’와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한 권고를 함축한다.

제9, 10행도 수궁적인 내용과 빈정대는 내용의 이중성을 보인다. 전자인 수궁적인 내용으로 보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각자가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낼 것이면”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표면적 텍스트에서 보았듯이,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군신민을 상중하로 보았을 경우에,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등의 美를 통한 권고이다. 다른 하나는 군신민이 군신민답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라는 의미가 되어,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권고가 된다. 반면에 후자인 빈정대는 내용으로 보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각자가 ‘나라가 꺾도 태평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낼 것이면”의 내용이다. 이 내용도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군신민을 상중하로 보았을 경우에, 上以風刺上, 中以風刺中, 下以風刺下 등의 刺를 통한 군신민 각자의 자성

의 권고이다. 다른 하나는 군신민이 군신민답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라는 의미가 되어,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한 권고가 된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락(제1~4행):

- i) 上以風化下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와
- ii) 上以風刺下의 ‘刺’를 통한 선정의 권고.

제2단락(제5~8행):

- iii)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와
- iv)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한 선정의 권고.

제3단락(제9, 10행):

v) 下以風化上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 및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등의 ‘美’를 통한 군신민의 자성 권고와

vi)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한 선정의 권고 및 上以風刺上, 中以風刺中, 下以風刺下 등의 ‘刺’를 통한 군신민의 자성 권고

이 정리에서 볼 수 있는 i)인 上以風化下의 ‘美’를 통한 선정의 권고는 중국 미자설의 전반부이고, iv)인 下以風刺上의 ‘刺’를 통한 선정의 권고는 중국 미자설의 후반부이다. 이외의 ii), iii), v), vi) 등은 「안민가」의 미자설이 보여주는 특성이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의 미자설에 일차로 下以風化上과 上以風刺下를 더하고, 다시 이에 정명사상에 입각한 上以風化上, 中以風化中, 下以風化下, 上以風刺上, 中以風刺中, 下以風刺下 등을 더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안민가」의 미자설은 이미 새로운 창의를 되어, 그 가치를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含蓄: 餘意와 餘味

앞에서 살폈듯이, 표면적 텍스트는 ‘美’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이고, 표면적 텍스트가 함축한 이면적 텍스트는 ‘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이다. 이렇게 「안민가」의 표면적 텍스트는 이면적 텍스트를 통하여 함축의를

보여준다. 이 함축의는 표면적 텍스트가 보여주는 餘意(姜夔)로, 文外之重旨(劉勰)나 意外生意(揭傒斯)에 속한다. 그리고 美는 甘味에, 刺는 苦味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美’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가 가진 甘味는 ‘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가 가진 甘苦味를 함축한다. 이로 인해 ‘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甘苦味는 ‘美’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甘味の 餘味(劉勰, 姜夔)로, 味外之旨(司空圖) 내지 味外味(沈德潛)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姜夔(1155~1221)는 『白石道人詩說』¹¹⁾에서 이 餘意와 餘味が 갖추어지면, 一唱三嘆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민가」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意格이 매우 높은 작품인 동시에, 一唱三嘆의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質而自然

得趣를 위하여, 중의를 포함한 함축의, 回旋起伏, 漸高 등을 행한다. 그런데 함축의에 집착하다 보면, 시어가 모호·난해·편벽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어의 연결 역시 모호·난해해질 수 있다. 또한 회선기복과 점고를 지향하다 보면, 시가 複雜多端하고 險作이 되어 散漫해지거나 난해해질 수 있다. 게다가 創意를 하거나 章의를 매우 넓고 크게 하다 보면, 시어가 편벽·난해·모호해지거나 시어의 연결과 내용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 모호, 난해, 편벽, 산만, 부자연스러움 등을 범하지 않아야 좋은 시이다. 이것의 성취를 흔히 質而自然(소박하고 자연스러움)¹²⁾이라고 한다. 이를

11) 詩貴含蓄 東坡云 言有盡而意無窮者 天下之至言也 山谷尤謹於此 清廟之瑟 一唱三嘆 遠矣哉 後之學詩者 可不務乎 若句中無餘字 篇中無長語 非善之善者也 句中有餘味 篇中有餘意 善之善者也

12) 詩有詞理意興 南朝人尚調而病於理 本朝人尚理而病於意興 唐人尚意興而理在其中 漢魏之詩詞理意興無迹可求 漢魏古詩 … 有佳句 如淵明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謝靈運 池塘生春草之類 謝所以不及陶者 康樂之詩精工 淵明之詩質而自然耳(嚴滄浪, 「詩評」, 顧龍振, 앞의 책, 47면)

「안민가」에서 확인하여 작품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1~4행은 “님검(임금)은 아버지! 알바둔(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 일건(백성은) 얼흔 아히고! 하실지? 일건이 사랑을 알고다!”이다. 이는 군신민이 부모아라고 말씀하시면, 백성이 사랑을 안다는 평범한 내용과 어려운 어휘가 하나도 없는 평이한 일상어로, 愛民思想을 질박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제5~8행은 “주린 배(/理窟)의 큰 것을 살리기에 있음의(/을) 물건을(/生物이) 이를 먹어 다스리도다(/다스려지도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제? 할지? 나라가 디니이기 알고다!”이다. 이는 치자가 백성에게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복잡다단한 반응들과,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거나 가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라가 지켜짐을 판단할 수 있다는 평범한 내용과 평이한 일상어로, 民本思想을 질박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제9, 10행은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해낼 것이면,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이다. 이 역시 평범한 내용과 평이한 일상어로, 正名思想을 질박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理窟, 生物, 太平 등이 한자이나 승려와 군신들에게는 평이한 일상어로 판단된다. 이렇게 질박하고 자연스러움은 거창하게 철학이나 사상을 운위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 기초한 평범한 내용과 평이한 어휘와 문자로, 愛民思想, 民本思想, 正名思想 등을 표현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이면적 텍스트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양가적 중의를 가질 수 있는 ‘알고다’, ‘다술아라’, ‘니저-더’, ‘알고다’, ‘太平흔임싸’ 등과, 구문상 제4, 8, 10행의 앞에도 뒤에도 올 수 있는 ‘흐실디’, ‘홀디’, ‘히널 드언’ 등과 같이 일상적이고 평이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한국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한 결과로, 이 작품이 질박하고 자연스러움을 말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안민가」를 唐詩의 반열에 놓았을 때의 그 위상과, 「안민가」의 창작에 唐代批評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의 정도를 살피기 위하여, 당대비평의 측면에서 「안민가」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당대비평에서 ‘意’는 ‘意格’의 의미인데, 왕창령의 ‘의격’은 ‘사상이나 事理의 격’이며, 교연의 ‘의격’은 ‘사상이나 도덕의 立言格’이다. 이 두 의격은 「안민가」의 愛民思想, 民本思想, 正名思想, 美刺說 등에서 확인된다.

2) 왕창령은 의격의 시는 ‘理得其趣’를 얻어 ‘詠物如合砌’면 上格이 된다고 보았는데, 「안민가」는 이 ‘得趣’를 얻어 상격이 되고, 그 정도가 매우 높아 高格 나아가 甚高格이 된다.

3) 교연은 의격의 시는 ‘創意’를 얻어야 上格이고, 그것이 極廣(大)이면 高格이 된다고 보았는데, 「안민가」는 이 ‘創意’를 愛民思想, 民本思想, 正名思想, 美刺說 등에서 보이면서 極廣(大)을 얻어 고격이 되고, 그 정도가 매우 높아 甚高格이 된다.

4) 「안민가」에서 표면적 텍스트(‘美’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는, 이면적 텍스트(‘美刺’를 통한 권고의 텍스트)를 함축하고 있다. 이 함축된 텍스트는 一唱三嘆의 詩歌가 보여주는 餘意와 餘味를 함께 보여준다.

5) 得趣를 이루기 위해, 含蓄意, 多端, 回旋起伏, 漸高 등을 행하면서, 創意를 하거나 창의를 매우 넓고 크게 하다 보면, 시어가 僻·난해·모호해지거나 시어의 연결과 내용이 부자연스럽기가 쉽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민가」에서는 일상생활에 기초한 평범한 내용과 평이한 어휘를 질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극복하였다.

6) 1)~3)으로 보면, 「안민가」는 그 의격이 매우 높은 작품이다. 이런 사실은 “王曰 朕嘗聞 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王曰 然 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의 문맥에서 두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其意甚高’가 「찬기파랑가」뿐만 아니라 「안민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작품에서 함께 나타난 得趣와 創意는 唐代批評, 그 중에서도 왕창령과 교연의 '의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美刺說까지 가세하면, 그 가능성은 좀더 높아진다.

7) 1)~5)로 보면, 「안민가」는 創意, 得趣, 餘意, 餘味, 質而自然 등이 매우 높다. 이것들은 唐代批評에서 작품의 최고로 치는 기준들이라는 점에서, 「안민가」는 唐代詩歌의 반열에 놓고 唐代批評으로 보면,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最高에 속한 작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6)과 7)의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어서, 이를 확정하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6)의 경우는 작품분석을 통해 당대비평의 수용 가능성을 개진한 것으로 수용사적인 검토가 좀더 요청된다. 만약 이 검토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 이 연구는 미국식 비교문학적 연구의 결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7)의 경우는 唐詩와 鄉歌의 구체적인 비교가 좀더 필요하다. 이 두 연구는 다음의 원고로 미룬다

○ 참고문헌

- 姜吉云(1995), 『鄉歌新解讀研究』, 學文社.
金完鎮(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金俊榮(1979),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김선기(1967), 「안간노래(安民歌)」, 『현대문학』 148, 현대문학사, 281면.
김승찬(1999), 『신라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朴魯堉(1981),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申載弘(2000), 『향가의 해석』, 집문당.
梁柱東(1942), 『古歌研究』, 博文書館.
梁柱東(1966), 「論語와 國文學」, 『論語』, 현암사, 393~394면.
양희철(1997), 『삼국유사 향가 연구』, 대학사.
양희철(2005), 「唐代批評으로 본 '其意甚高'와 <찬기파랑가>」,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43~76면.
양희철(2005), 「'其意甚高' 연구의 문제와 전망」, 『인문과학논집』 30집, 청주대학

교 학술연구소, 19~35면.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尹榮玉(1982),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李妍淑(1991), 「安民歌考」, 『韓國文學論叢』 12, 한국문학회, 17면.
李綏衡(1994), 「安民歌 研究」, 『韓國文學論叢』 15, 한국문학회, 20~21면.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징음사.
최 철(1990), 『항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황폐강(2001), 『항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顧龍振 編輯(中華民國 59), 『詩學指南』, 台北: 廣文書局.
臺靜農 編輯(中華民國 62), 『百種詩話類編』, 臺北: 藝文印書館.
遍照金剛(中華民國 63), 『文鏡秘府論』, 台北: 學海出版社.
許清雲 編輯(中華民國 73), 『皎然詩式輯校新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黃美鈴(中華民國 71), 『唐代詩評中風格論之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 이 논문은 2005년 6월 15일 접수되고, 2005년 8월 10일 심사완료되어,
2005년 8월 16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

Abstract

A Study on Anminga
from the viewpoint of the criticism in the Tang age

Hee-cheol Y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Anminga from the viewpoint of the criticism in the Tang age,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express *kiuisimko*(其意甚高) in *Samkukyusa*. The result follow as:

The meaning of the express *ui*(意) in the express *kiuisimko* is the *ui*(意) of the thought or the reason in Wang Chang Ryeong's poetics, or the *ipeon*(立言) of the thought or the moral in Gyo Yeon's poetics. And the elements which make the *ui*(意) as very high(甚高) are the reason possessing its emotive meaning(理得其趣), the eventfulness(多端), the different meaning(別意), the spiral and checkered(回旋起伏) structure, the gradual rising structure(漸高), the harmonious stone steps(合砌), and the implicative meaning(含蓄意) in Wang Chang Ryeong's poetics. And the elements which make the *ipeon* as very high(甚高) are the creative meaning(創意), the very wide(極廣) or wide-large(廣大) meaning, and the implicative meaning in Gyo Yeon's poetics.

These elements discovered in the two poetics are found in Anminga. So we concluded as: the express *kiuisimko*(其意甚高) is applicable to Anminga.

And the implicative meaning(含蓄意) in Anminga include the excessive meaning(餘意) and excessive taste(餘味). And the express and the content in Anminga are simple and natural(質而自然). So we also concluded as: Anminga is a everlasting masterpiece from the viewpoint of the criticism in the Tang age, 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kiuisimko*.

Key words: kiuisimko(其意甚高), the criticism in the Tang age, the reason possessing its emotive meaning(理得其趣), the harmonious stone steps(合砌), the creative meaning(創意), the very wide meaning(極廣意), the eventfulness(多端), the different meaning(別意), the spiral and checkered structure(回旋起伏), the gradual rising structure(漸高), and the implicative meaning(含蓄意).

K C I